

2021년 서평쓰기대회 장려상 수상작

장려상

서명

부지런한 사랑 / 이슬아 : 문학동네,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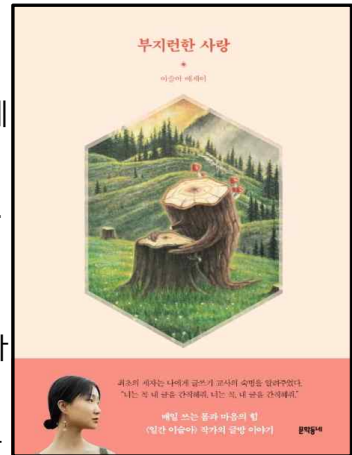
제목 : 넓고 깊은 사랑의 시선

우리는 살면서 타인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을까. 줄곧 나에게만 머물던 시선을 타인에게 돌리는 순간 우리는 마음이 바빠진다고 작가는 말한다. 안 들리던 말이 들리고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된다. 또, 슬프지 않았던 것들이 슬퍼지고 기쁘지 않았던 것이 기뻐지며,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세계 안에 타인을 받아들이게 된다.

작가는 이러한 과정을 글쓰기를 통해 구현해 낸다. 이 책에서는 작가가 글쓰기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의 마주했던 글쓰기 수업의 에피소드가 담겨 있다. 학생들의 글이 인용되어 있고, 그 글을 바라보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 또한 이 책의 주된 메시지이다. 인용된 학생들의 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기가 막힌 명문장을 만들어내는 건 다름 아닌, 초등학생들이다.

초등학생의 글이라니... 대부분은 그저 어린아이들의 유치한 글을 예상하며 코웃음을 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책이 가히 그 예상을 깰 수 있다고 단언한다. 책에 실려있는 초등학생 아이들의 글은 어른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시선에 머물러 있고, 쉽게 지나쳐버리는 감정들을 깊고 넓게 구현해 내어 통찰력 있게 담아낸다. 어느 때 성인의 글 못지않은 문장력을 구사하기도 한다. 아이들은 평범한 소재로도 단시간만에 맛깔나는 글을 만들어낸다.

아이들이 종이에 뽀뽀뽀 꼭꼭 눌러 담은 글이 그대로 책에 담겨 있으니 이 책을 통해 아이들의 통찰력과 감수성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열두 살 아이가 앞구르기에 관해 디테일하게 묘사하여 쓴 글을 읽다 보면 나도 앞구르기를 한 것만 같은 경험을 한다. 까먹고 있던 앞구르기의 두려움과 재미를 상기시키는 디테일하고 풍부한 설명을 글로도 전달해 준다. 글쓴이의 경험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감각에도 닿게 되는 능력이다.



이처럼, 타인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글을 쓰는 행위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글을 읽는 독자에게도 같은 반응을 일으킨다. 본래 이야기의 속성은 우리를 몇 번이고 다시 살게 하는 힘이 있다. 다른 세계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볼 수도 있고, 현실에서는 엄두도 안 날 스릴을 잠깐 체험해볼 수도 있고, 가짜로 비극을 겪으며 마음의 근육을 키운다.

작가는 첫 수업에선 주어를 '나'로 설정하여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표현하는 글쓰기부터 시작한다. 그다음엔 주어를 타인으로 설정하여 설정한 타인에 대한 글쓰기로 범위를 넓혀간다.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의 시야와 마음의 범위는 확장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큰따옴표를 붙이며 타인이 했던 말을 기억하여 적음으로써, 보는 시선에서 듣는 시선으로도 바꾸어간다. 그렇게 글에 숨을 불어넣으며 사랑을 담는다.

작가는 글쓰기 수업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이 태연하게 얼렁뚱땅 명문장을 만들어내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한다. 작가가 글쓰기 교사로서 가졌던 사명 중 하나인 '궁금해하기'였다. 좋은 질문을 가지며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동료ja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매번 글쓰기 수업에 들어간다. 작가의 이러한 태도는 책의 곳곳에도 묻어나 있다. 저마다의 개성이 담겨 있는 아이들 글에 작가는 각기 다른 매력을 발견하여 항상 글 밑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코멘트를 적어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한 가장 따뜻한 격려를 해준다. 그리고는, 이 시절에 자신이 선생님으로서 보낸 사랑과 용기가 20대 이후 한 사람의 어떤 밑천이 될 것이 분명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밑천은 탄력 있는 마음을 구성하여 상처받지 않는 마음 말고 상처받더라도 곧 회복하는 마음, 고무줄처럼 탱탱한 그 마음을 구성하는 밑천이다. 작가는 아이들이 본디 자신의 매 순간 학생들을 정성스럽게 바라본다.

이 책에 가장 큰 핵심은 작가의 태도와 신념을 통해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고, 아끼는 방법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설명한다. 작가는 자신의 유년 시절 경험과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도 겪었던 경험을 더듬어가며 세상을 배우는 과정을 보여준다. 청소년 시기엔 재능에 관해 자주 생각했다는 작가는 글쓰기 수업에서 재능있는 친구의 글과 자신의 글을 비교하다가 질투심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거침없이 담백하게 담아낸다. 그러나 스물아홉 살인 지금엔 더 이상 재능에 관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꾸준함 없는 재능이 어떻게 힘을 잃는지, 재능 없는 꾸준함이 의외로 얼마나 막강한지 알게 되어서다. 재능이 타고나지 않았던 작가는 타고나지 않은 것에 관해, 후천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말한다. 재능은 선택할 수 없지만 꾸준함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작가는 재능을 가진 아이의 글을 보고도 재능이라는 말을 빼고 그저 '너의 글을 읽는 것이 너무 즐거워' 라고 피드백을 한다. 아이의 비범한 능력을 보고 다른 인물을 빗대어 너는 '톨스토이가 될거야' 라는 말보단 '너는 너가 될 거야. 아마도 최대한의 너일 거야.'라고 말한다. 얼마나 평범하거나 비범하든 간에 결국 계속 쓰는 아이만이 작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엔 작가의 편안하고 특유의 담백한 문체가 담겨 있다. 덕분에 작가가 아이에게 건네는 말들이 읽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

고, 편안함을 준다. 나 또한 글쓰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따뜻하고 사랑을 가진 사람의 수업은 자기 자신을 탐구함과 동시에 타인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하는 책이다. 동시에 나에게도 이러한 선생님이 있었나 문득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이 수업을 들은 아이들에게 부러움이 샘솟기도 한다.

글쓰기는 게으르고 이기적인 우리를 결코 가만히 두지 않으며, 다른 이의 눈으로도 세상을 보고, 스스로에게 갇히지 않는 힘을 길러준다는 말로 작가는 이야기를 시작한다. 내 안에만 머물렀던 시선이 타인으로 이어지며, 부지런히 사랑할 체력과 부지런히 쓸 체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 뿐 아니라 세계를 하는 것이다. 또, 글쓰기는 특정 직업군의 사유가 아닌 누구든 접근할 수 있으며, 재능이 없어도 꾸준함만으로도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도구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시야를 더 넓고 깊게 확장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나 또한 글을 통해 누군가에게 수많은 기쁨과 슬픔을 오래도록 느끼게 해주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를 다시 한번 곱씹으며 조심스레 건네는 것 또한 사랑의 일부라고 생각이 든다.